

S스포츠

14 전남매일

2020년 1월 28일 화요일

광주도시철도공사 김성연 은메달
텔아비브 그랑프리…박다솔 ‘동’



한국 여자 유도 70㎏급 간판 광주도시철도공사 김성연(29·사진)이 2020 텔아비브 그랑프리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성연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린 대회 여자 70㎏급 결승에서 영국의 베테

랑 셸리 콘웨이에 경기 시작 2분 8초 만에 발뒤축 걸기 한판패를 허용하며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김성연은 1회전에서 업어치기 한판승, 2회전에서 소매들어 업어치기 절반_소매들어 업어치기 절반 종합 한판승, 3회전에서 업어치기 절반승, 4회전에서 반칙승(지도3)으로 준결승에 올랐다. 준결승에서도 미리암 부트케라이트(독일)를 반칙승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으나 마지막 판문을 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전날 열린 여자 52㎏급에서는 순천시청 박다솔(24)이 동메달을 차지했다.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박다솔은 2회전 절반승, 3회전 한판승, 4회전 반칙승(지도3)으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마에다 지시마(일본)에 한판패를 허용한 박다솔은 동메달결정전에서 아나스타샤 플라카르포바(러시아)에게 반칙승을 거두면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진화 기자



고재영



조정만

전남체육회 ‘2처2차4부’ 직제 개편
고재영 행정지원·조정만 체육진흥처장

전남도체육회가 “2처 2차 4부”로 직제를 개편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16일 김재무 제37대 전남도체육회장 취임후 제24차 이사회(20일)와 2020년도 정기 대의원총회(21일)를 통해 사무처 조직을 개편, 지난 22일 사무처 정기 인사를 시행했다.

전남도체육회 사무처는 기존 1처 1실 4부의 조직에서 향후 법인화 추진, 예산 증액 등 산적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 국장급 인사를 파견 요청하는 등 2처(행정지원처, 체육진흥처) 2차 4부의 조직으로 바뀌었다.

이에따라 행정지원처장에는 지난 1일 전남도에서 파견된 고재영 처장이, 체육진흥처장에는 조정만 기획홍보실장이 내부승진했다.

신설된 행정지원처장에는 박경재 총무부장이 승진했다. 체육진흥처장 자리는 공석상태다.

현장에서 전남체육 진흥을 주도할 4개 부서장에는 정현숙 전문체육부장이 총무부장으로, 공감석 기획홍보팀장이 생활체육부장으로, 이행구 생활체육팀장이 기획홍보부장으로, 안요섭 전문체육팀장이 전문체육부장으로 각각 발령받았다. /최진화 기자



26일 오후(현지시간) 태국 방콕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결승전. 사우디를 꺾고 사상 첫 대회 우승에 성공한 선수들과 김학범 감독이 우승 트로피를 높이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 최강 김학범호 “이제는 올림픽이다”

AFC U-23 챔피언십 6승 전승 우승 쾌거

A매치 맞춰 올림픽 이전 3~5차례 평가전

와일드카드 제외…15명 엔트리 확보 경쟁

끝까지 두드러진 마침내 골문이 열렸다. 한국 축구가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에서 120분 연장 혈투 끝에 첫 우승을 달성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3 축구 대표팀은 26일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회 결승전에서 연장 후반 8분 터진 정태욱(대구)의 헤딩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결승 진출로 2020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본선 진출권을 확보해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한 김학범호는 2014년 1월 시작해 4회째를 맞는 이 대회에서 한국 축구 사상 처음으로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 올리는 겹경사를 맞았다.

특히 김학범호는 AFC U-23 챔피언십 역대 대회 처음으로 전승(6승) 우승

의 쾌거까지 일궈냈다.

김학범호는 조별리그 3경기(중국 1-0승·이란 2-1승·우즈베키스탄 2-1승)를 시작으로 요르단과 8강전(2-1승), 호주와 4강전(2-0승)에 이어 사우디와 결승전(1-0승)까지 내리 6연승의 ‘퍼펙트 우승’을 기록했다.

김학범호의 중원을 든든히 지킨 원두재는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원두재는 중국과 조별리그 1차전 결장 이후 나머지 경기를 모두 풀타임으로 소화했다.

또 골키퍼 송범근은 6경기에 모두 풀타임 출전하며 3실점으로 막는 철벽 방어로 김학범호의 우승에 큰 힘을 보태면서 ‘베스트 골키퍼’로 뽑혔다.

‘도쿄행 티켓’과 ‘우승 트로피’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김학범호는 28일 새벽 방콕을 떠나 귀국길에 오른다.

◇도쿄올림픽 목표는 동메달 이상

김학범 감독은 이날 사우디와의 결승 경기가 끝난 뒤 공식 기자회견에서 “올림픽 본선 진출과 대회 우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힘들고 어려운 대회였다”라며 “우리 팀은 특출난 선수가 없다, 그래서 한 발짝 더 뛰고 희생하는 ‘원팀 정신’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도쿄올림픽의 목표에 대해서는 “지금 올림픽 목표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도 한국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이번에는 동메달 이상의 성적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와일드 카드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우리 선수들에 대한 분석은 물론 조 추첨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조금 기다려주면 좋겠다”며 “우리 팀의 보완점은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겠다. 지금은 우승의 기쁨을 더 누리고 싶다”고 말했다.

◇‘외카’ 제외 15명 엔트리 경쟁

태극전사들은 도쿄올림픽에 나설 최종엔트리 18명에 포함되기 위한 더 뜨거운 내부 경쟁을 펼쳐야 한다.

이번 대회에 소집된 선수는 23명이다. 하지만 올림픽 엔트리는 18명뿐이다.

올림픽 대표팀은 골키퍼 2명과 필드 플레이어 16명으로 구성된다. 올해 도쿄 올림픽에는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선수만 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올림픽은 23세를 넘는 선수를 3명까지 내보낼 수 있는 ‘와일드카드’ 제도가 있어서 김학범호에 뛰었던 선수들이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을 기회는 더 줄어든다.

18명의 올림픽 엔트리에서 와일드카드 3명을 제외하면 15명의 자리만 U-23 선수들에게 돌아간다.

소속팀의 반대와 부상으로 이번 대회에 나서지 못한 이강인(발렌시아)과 백승호(다름슈타트) 등을 고려하면 ‘김학범호 태극전사’들의 생존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김 감독이 3장의 와일드카드를 모두 쓸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A대표팀에서 활약하는 기량 좋은 선수를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 김 감독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때도 3장의 와일드카드를 모두 소진했다.

◇올림픽 전까지 3~5차례 평가전

김학범호는 이제 ‘올림픽 대표팀’으로 변신해 본격적인 도쿄올림픽 준비에 집중한다.

대한축구협회는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 일정에 맞춰 김학범호의 평가전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지휘하는 A대표팀이 3월 말과 6월 초에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5~8차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김학범호는 그 기간에 맞춰 올림픽 출전국 등을 상대로 국내 평가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2020 도쿄올림픽 남자 축구 대진은 4월 20일 일본 도쿄의 NHK홀에서 열린다. 대진 추첨 결과에 따라 김학범호의 6월 평가전 상대도 결정된다. 같은 조에 묶인 팀과는 평가전을 할 수 없어서다.

도쿄올림픽 남자축구가 7월 23일~8월 8일까지 치러지는 만큼 김학범호는 국가대표팀 운영규칙에 따라 대회 개막 30일 전인 6월 22일부터 소집할 수 있다. 김학범호는 평가전 상대 섭외 상황에 따라 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최소 3경기에서 최대 5경기까지 평가전을 통해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광주체고 안세영 태국 마스터스 준우승

세계랭킹 3위 야마구치에 패…새해 첫 메달 만족

2020 도쿄올림픽 메달에 도전하는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기대주 안세영(광주체고)이 2020년 첫 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단식 세계랭킹 9위 안세영은 지난 26일 태국 방콕 후아막체육관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300 태국 마스터스 결승전에서 세계랭킹 3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에게 0-2(16-21 20-22)로 패했다.

1게임에서는 1-4로 주도권을 내준 이후 첫판을 내줬다. 2게임에서는 1-6에서 7-7로 따라잡고 14-9로 역전했지만, 듀스로 따라잡히며 결국 우승을 내주고 말았다.

안세영은 비록 새해 첫 우승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2020년 첫 메달인 은메달을 수확하며 2020 도쿄올림픽을 향한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5차례 우승을 거두며 돌풍을

일으킨 안세영은 앞서 2020시즌 1·2호 대회인 말레이시아 마스터스와 인도네시아 마스터스에서는 각각 16강, 8강에서 돌아섰다.

안세영은 일본 배드민턴 여자단식 최강자인 야마구치에게 2연승 뒤 1패를 기록했다.

여자복식 세계랭킹 13위 정경은(김천시청)-백하나(MG새마을금고)는 결승전에서 세계랭킹 1위 천칭천-자이판(중국)에게 2-1(21-17 17-21 15-21)로 아쉬운 역전패를 당하며 우승을 내주고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대회에서 한국은 은메달 2개와 동메달 2개를 수확했다.

25일 4강전에서 정경은-백하나, 천칭천-자이판에게 각각 패한 여자복식 세계랭킹 10위 장예나(김천시청)-김혜린(인천국제공항)과 세계랭킹 5위 김소



안세영이 지난 26일 태국 방콕 후아막체육관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300 태국 마스터스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EPA·연합뉴스

영(인천국제공항)-공희용(전북은행)은 나란히 동메달을 획득했다.

/연합뉴스

강경민 9골…광주도시공사 핸드볼리그 시즌 3승

경남개발공사 25-23 제압 골키퍼 박조은 MVP

광주도시공사가 경남개발공사를 제물로 시즌 3승을 거뒀다. 한시즌 3승은 지난 2015년 3승(1무10패)이후 5년만이다.

광주도시공사는 27일 대구 시민체육관에서 열린 2019-2020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2라운드 경남개발공사와의 경기에서 25-23(12-11 13-12)으로 승리했다. 최근 2연패였던 광주도시공사는 경남개발공사전 1라운드 패배(25-28)를 설욕하는 것은 물론 올시즌 3승(2무4패)을 거두며 달라진 경기력을 재확인했다.

골키퍼 박조은의 선방(방어율 40.5%)과 고비마다 터진 베테랑 송해림(3골)과 원선필(3골)의 득점이 빛났다. 9골을 성공시킨 에이스 강경민의 득점력도 승리의 밑거름이 됐다.

전반전은 양팀이 앞겨서니 뒷서거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초반 실책이 잇따르며 2골의 리드를

내주는 듯 했던 광주도시공사는 송해림과 원선필의 득점으로 9-9 동점을 만들었고, 다시 11-11이 된 29분, 서야루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12-11로 1점을 앞선 채 전반전을 마쳤다.

후반전도 동점과 역전이 오갔다.

강경민의 프리드로로 후반 첫 골 물꼬를 낸 광주도시공사는 서야루, 원선필 등의 득점이 이어지면서 16-14, 2점을 앞섰다.

경남개발공사의 추격도 만만치 않아 후반 10분에는 16-16 동점을 허용하기도 했지만 송해림, 강경민, 최지혜가 골문을 열었고 박조은의 잇단 선방으로 인해 후반 15분까지 2골 리드를 잡았다.

후반 28분 23-23 다시 동점을 허용한 광주도시공사는 후반 29분 원선필이 얻어낸 7m 프리드로를 강경민이 성공시켜 1점을 앞서갔고, 경기 종료 직전 최지혜의 슈팅까지 성공하면서 25-23으로 승리했다. /최진화 기자